
	보 도 자 료		2019년 1월 30일(수) (1. 30. 16:00 이후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	기 상 청	지 진 화 산 정 책 과	과 장 유상진(02-2181-0762) 연구관 김상백(02-2181-0763)
	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	혁 신 기 획 담 당 관	과 장 임종윤(02-397-7381) 서기관 김천겸(02-397-7382)

보 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, 기상청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손잡다.

- 단층연구 기술교류 방사능 재난 시 신속한 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-

- 기상청(청장 김종석)과 원자력안전위원회(위원장 엄재식, 이하 원안위)는 1월 30일(수) ‘지진기상 및 원자력 안전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’을 체결한다고 밝혔다.
- 최근 잇따른 대규모 지진(‘16년 경주지진, ’17년 포항지진)으로 원전 등 주요 기반 시설의 지진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,
 - 지진과 기상 분석 및 경보의 주무부처인 기상청과 원자력 안전 규제 주무부처인 원안위 간 협력을 통해 △지진 발생 환경 및 특성에 대한 체계적 조사 △신뢰도 있는 감시체계 구축 △재해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.
- 주요 협약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, ‘원자력 시설의 지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협력 분야’와 ‘국내외 방사능 유출 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협력 분야’이다.

- 첫째, 지진·지진해일 발생 정보를 공유하고 단층 연구 기술 교류 및 지진 관측장비 성능 검사·검정 기술 개발에 협력한다.
 - 지진·지진해일 발생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함으로써 지진재해에 대한 안정성을 강화한다.
 - 또한, 한반도 단층조사에 관한 기술교류를 통하여 원전 주변을 포함한 한반도의 지진 발생원인과 분석정확도 향상 및 지진특성 평가에 필요한 지하 단층정보 파악에 협력할 예정이며,
 - 지진 관측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동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진 관측장비 성능 검사와 검정에 관한 기술 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.

- 둘째, 방사능 사고 정보 및 기상정보 공유와 방사성 물질 확산모델 공동 연구개발, 기상항공기를 활용한 공중 방사선 감시를 위해 협력한다.
 - 국내 및 국외(중국, 일본 등 주변국) 방사능 사고 발생 시, 방사능 사고 정보 및 기상정보를 신속하게 공유 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며,
 - 특히, 방사성물질 확산예측 모델 공동 연구개발, 방사능 재난 시 공중방사선탐사를 위한 기상항공기 활용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.

- 기상청과 원안위는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, 원전시설과 관련된 재해 사전 조사, 실시간 감시 및 신속한 정보 공유, 대응 체계 강화를 통한 골든타임 확보 등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.

- 붙임: 기상청·원안위 업무협약식 사진



| 업무 협약식 기관장 사진 |

김종석 기상청장(오른쪽)과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(왼쪽)



| 업무 협약식 단체사진 |